



1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동아여고에서 2012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멍든 농심... 슬픈 농업인의 날

한미FTA 파고속 올해도 어김없이 배추밭 갈아엎고 벼 아적시위

“농사를 시작한 첫해부터 20여년간 한 해라도 야적(野積)시위가 벌어지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영광군 영광읍 와룡리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하영(53)씨는 올해 5만2800㎡(1만6000여평)에서 26.4t의 나락을 수확했다. 하지만 이씨는 올해 수확한 나락을 고스란히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생산비를 건지지 못할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2009년산 공공비축미를 반값에 풀어 팔았을 때 이용되는 등 정부의 농정(農政)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쌀값·배추값 하락과 눈앞에

닥친 한·미 FTA(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인해 농심(農心)은 시퍼렇게 멎었다. 농민들은 40kg 한 가마에 4만7000원으로 책정된 우선지급금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다며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정책에 반발, 수매거부 운동과 함께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기계와 비료 등 생산비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쌀값은 15~20년전 가격으로 묶여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쌀값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해 쌀 100만t 이상을 수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장배추 재배농민들 역시 올해 40%이상 늘어난 재배면적과 생산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배추가격이 포기당 802원 밑으로 떨어지면 산지폐기를 하겠다는 ‘김장채소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해남군 황산면 덕암마을 들녘에서 만난 이정완(61)씨는 “전년보다 1320㎡(400평) 늘린 8910㎡(2700여평)에서 배추를 재배했는데 관료가 걱정”이라며 한숨지었다. 지난해에는 배추값이 경추되며 중간상인들이 100평당 100~150만원선에 ‘탈떼기’로 사갔지만 올해는 절반

으로 폭 떨어진다. 그러나 밭갈이 끊긴 상태이다. 무엇보다 농민들은 눈앞에 닥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16회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전국에서 모인 농업인 1200여명은 서울 여의도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전남도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안이 발효되면 전남도내 농업소득 감소액이 향후 15년간 1조40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

EBS 비틀기 없어... 변별력 낮아 진학지도 혼선

10일 치러진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지만, 자연계의 수리 '가'영역에서 난이도 높은 문항 2~3개가 포함돼 상위권을 가려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전반적으로는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난이도 비율이 지난해 보다 1% 안팎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외국어·수리 '나' 영역은 만점자가 1.5%대 전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율이 전 영역에 걸쳐 70% 이상 유지됐고 EBS 교재 문항을 '비틀어 놓은' 문제가 적어 수험생들이 쉽게 느꼈을 것이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흥수 수능출제위원장(전남대 영어교육과 교수)은 이날 정부중앙청

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0~1.5% 사이가 되도록 노력했으며, 영역별 수능-EBS 교재의 영역별 연계 비율은 언어 74%, 수리 70%, 외국어 70%, 사탐 70.9%, 과탐 70%, 직탐 71.5%, 제2외국어 70%”라고 밝혔다. 입시전문 기관들은 실제 이같은 비율이 유지돼 영역별 1등급 컷(등급 구분점수)은 원점수 기준으로 각각 언어 92~97점, 수리 가·나 92~96점, 외국어 94~96점으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언어·수리·외국어 등 주요 영역이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수능성적 중위권대에 수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고독점의 가장 큰 변수로는 수리영

역이 꼽혔다. 박연중(송원고) 전국진학지도 협의회 공동대표는 “수리영역의 경우 '가'형에 2~3개 고난도 문항이 포함돼 결국 이 문제를 푸느냐 여부가 상위권 변별력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어영역에서도 역시 고난도 2-3 문항이 최상위권을 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4일까지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수능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21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수능 점수는 오는 30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장, 장휘국 시교육감이 10일 광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삭제하기로 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

‘5·18 빠진 교과서’ 반발 확산

광주시·전남도·시민단체 등 철회 촉구

집필기준개발위원장 사퇴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기로 한데 대한 반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장, 장휘국 시교육감은 10일 광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과 4·19혁명, 6월 항쟁 내용을 송두리째 삭제하기로 한 것은 피 흘려 쌓아온 자랑스런 민주정신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역사, 사회 교과서 등에 5·18 민주정신이 확대 수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5·18의 동기와 역사적 공헌 등을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과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호균 도의회 의장, 장만체 도교육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과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4·19 혁명, 6월 항쟁

등을 송두리째 삭제하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이자 국제 사회가 인정 한 민주주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은 광주시민의 30년간 투쟁과 민주화를 위한 희생·노력을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억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개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교과부의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반발해 사퇴했다. /홍철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年産 50만대 보인다

2년 연속 생산량 신기록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난 9월 지난해에 세운 연간 생산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10개월 9일만이다. <관련기사 8면> 10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9일까지 광주공장에서는 41만2645대를 생산, 지난해 세운 연간 생산 신기록 41만 1196대를 넘어섰다. /박정욱기자 jwpark@

이는 지난해 9월 광주공장 노사가 50만대 생산체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가동된 데 힘입은 것이다. 특히 기아차 노사가 이룬 2년 연속 부문급 성과도 이같은 신기록 행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은 연말까지 올해 사업계획인 48만3000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수능 문제 풀이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SmArt 나를 뛰어넘다
동강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모집

입시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전형구분	원서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원서접수 방법		
				창구접수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수시3차	2011. 11. 14 ~ 2011.12. 2	2011. 12. 6	2011. 12. 12~14	우리대학 본관1층 입학지원과	www.dkc.ac.kr www.jinhakapply www.uwayapply www.apply114.com	원서와 전형료를 접수 마감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

취업을 잡(Job)을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스마트한 선택!



동강대학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TEL : 062-520-2555, FAX : 062-520-2559